

수상 개요

수상 부문	래스커-드베이키 임상의학연구상(Lasker-DeBakey Clinical Medical Research Award) 혈액응고인자 IX 와 X 를 연결해 A 형 혈우병에서 결핍된 제 VIII 인자의 활성을 회복시키고 이 유전성 질환의 심각한 출혈을 예방하는 이중특이항체를 발명한 공로
수상자	핫토리 구니히로(Kunihiro Hattori) 박사, 주가이 전 시니어 펠로우 기타자와 다케히사(Takehisa Kitazawa) 박사, 주가이 연구본부 부분부장 이가와 도모유키(Tomoyuki Igawa) 박사, 주가이 연구본부장
인정받은 업적	A 형 혈우병은 혈액응고인자 VIII 의 결핍으로 발생하는 출혈성 질환이다. 핫토리 연구진은 제 VIII 인자 자체를 보충하는 대신 그 기능을 항체로 대체한다는 새로운 개념을 추구했다. 연구진은 활성화 혈소판 표면에서 활성화 제 IX 인자와 제 X 인자를 적절한 방향과 공간적 위치에서 연결하는 이중특이항체를 개발했고, 이를 통해 ACE910(이후 에미시주맙으로 명명)을 탄생시켰다. 또한 상업 규모 생산을 위한 발현 및 정제 효율을 높이는 독자적인 항체 엔지니어링 기술 ART-Ig 를 개발했다. 이 연구의 의의는 항체 치료제의 가능성을 새롭게 정의하고 A 형 혈우병의 치료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획기적인 개념을 입증했다는 데 있다. 에미시주맙은 제 VIII 인자 억제인자(항체)의 유무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출혈 예방 효과를 제공한다. 피하 투여의 편의성과 투여 간격 연장을 통해 A 형 혈우병 환자와 가족의 치료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.
시상식	2026 년 9 월 17 일 목요일(EDT) 장소: 더 피에르 호텔(The Pierre Hotel, 미국 뉴욕주 뉴욕) 프로그램: 오찬 및 수상자 수상 소감